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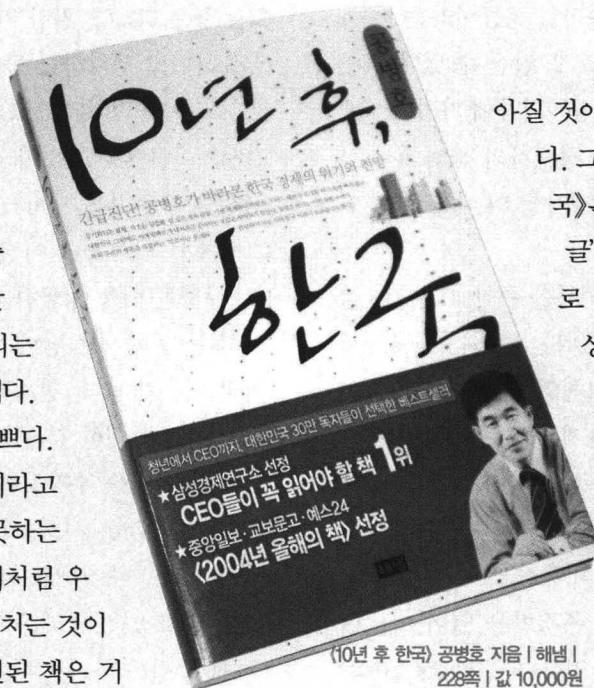
공병호의 《10년 후 한국》

웬 염세주의?

글_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

우리 출판계의 열악한 사정은 여러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책을 떠내도 손해를 보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 우리 출판계의 현주소다. 저자들도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웬만큼 잘 팔리는 책을 써도 입에 풀칠하기가 어렵다. 경제에 관한 책은 사정이 더 나쁘다. 일반국민이 경제란 어려운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세상에 경제문제처럼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이던가! 그래도 경제와 관련된 책은 거의 팔리지 않으므로 나는 되도록 좋은 책을 소개하여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읽도록 노력해왔다. 내 글쓰기는 독자들에 대한 간절한 호소였던 셈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저자들에게도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좋은 책을 만들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을 것이기 때문이다. 2005년을 뒤돌아보면, 경제관련 서적 중에서 베스트셀러 1위는 아마 공병호의 《10년 후 한국》일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책은 냉혹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번에는 색다르게 이 책의 문제점에 대해 따져보자.

시간 낭비할 것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저자에게 물어보자. 스스로 보수주의자라고 자처하는가? 그렇다면 보수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보수란 현 체제를 지키자는 것이다. 그런데 현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킬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럼 그 가치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당연히 현재도 그런대로 괜찮고, 미래는 더 좋



아질 것이라고 믿어야 지킬 가치가 주어진다. 그런데 공병호가 쓴 책 《10년 후 한국》은 미래를 어떻게 봤을까? '여는 글'에는 이런 구절들이 있다. "앞으로 한국의 경제는 역동성을 상당히 상실하게 될 것이다." "향후 10년을 미루어보면 낙관보다는 낙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이다." 공병호는 우리 경제의 미래가 대단히 비관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아니, 이것은 우리 경제에 대한 저주나 다름없다고 해야 한다. 이것이 과연 보수의 자세일까? 미래가 비관적이라면서 보수하자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일까?

본론에 들어가서도 공병호의 비관은 그칠 줄 모른다. 아니, 더 심각해진다. 첫 장의 제목부터가 '주력산업이 흔들린다'이다. '갈수록 수출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수출을 견인하는 5~10가지 주력산업이 지금 한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이런 장치산업은 생산기술의 우위만으로는 중국 같은 후발 주자를 따돌리기 어렵다'고 단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을 이끄는 주력 품목이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변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렸다. 한때 수출 5대 품목에 들었던 잎담배, 합판, 가발 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주요 수출품목에서 조차 자취를 감추었다. 1980년대까지 수출 한국을 이끌었던 가방, 완구, 의류 등도 이제는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현재의 주력 수출품목은 장차 새로운 주력 수출품에게 그 자리를 양보할 것이며, 이것이 한국을 먹여 살릴 것이다.

또한 그는 중국의 부상과 추격이 우리에게는 공포스럽고 어쩌면 우리 경제의 파멸을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점을 내세웠다.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자동차 부품의 종합 경쟁력은 중국이 한국을 앞서게 된다. 반도체산업 메모리 분야의 경우도 중국은 2010년 즈음이면 일본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하고, 한국에는 근소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한다”고 쓴 것이다. 또한 “중국근로자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놀랄 정도이다. 원래 계획보다 빨리 거의 모든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는 중국으로 이전한 기업 임원의 말을 인용하면서,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면 우선은 단순한 장치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도 썼다. 그러나 이것은 염세주의자의 자세일 뿐이다. 중국이 우리에게 무섭게 도전해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철저하게 외면해버린 것이다.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수는 없을까? 세계 최대 인구의 시장,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 우리 바로 곁에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 중국특수가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장치산업 이외에 현재 한국을 먹여 살리는 기업들의 실상은 어떠한가?”
화려한 외양과는 달리 허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략) 문제는 우리가 원천기술 면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라고 쓴 구절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 자립도는 점점 더 향상되고 있고, 원천기술에도 점점 더 접근해가고 있다. 즉, 원천기술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했던 때에도 우리 기업들은 ‘잘 나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 더 ‘잘 나갈 것’이 확실하다고 해야 한다. 반도체 생산장비의 경우, 과거에는 전량 수입에 의존했으나 지금은 국산화가 빠르게 이뤄져가고 있으며, 각종 핵심 칩의 개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사실들은 왜 외면하는 것일까?

이 책 둘째 장의 제목은 ‘떠나는 기업들, 사라지는 일자리’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에 바탕을 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시류에 편승한 감성적인 판단이라고 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 공장들이 모두 ‘해외로 해외로’ 이전하

고 있다는 데에도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30퍼센트 이상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20퍼센트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기간이 벌써 3년에 가깝다. 이렇게 높은 실적을 이렇게 장기간 지속한 것은 1960년대나 1970년대에나 가능했던 일이다. 물론 1980년대 종반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 때는 소위 ‘3저 호황’이라 불리는 특수한 호경기가 나타났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참고로 1990년대에는 수출증가율이 연평균 1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했었다. 공병호에게 물어보자. 우리나라 수출이 어떻게 이처럼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을까? 수출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일까? 아니다. 모두 우리가 생산한 제품들이다. 산업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분야가 있는 반면에, 새로운 산업시설을 끊임없이 짓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과거의 5천 달러 또는 1만 달러 시대를 누볐던 산업들은 이제 도태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이런 산업의 시설을 해외로 이전하여 돈을 좀 더 벌자는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세계적으로도, ‘산업 공동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나라들은 번영했고, 저지하려고 했던 나라들은 경제난을 겪어야 했다는 사실은 왜 외면하는가? 시대에 뒤떨어진 산업시설을 해외로 이전해야 새로운 산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정녕 모른다는 말인가? 과거의 산업시설까지 끌고 가면서, 어떻게 새로운 산업시설에 필요한 인력은 충당할 수 있다는 말인가?

더 이상 〈10년 후 한국〉이라는 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헛된 노력일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으로도 이 책이 얼마나 심각한 논리적 오류와 감성적 판단으로 가득 차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이 글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공 소장은 ‘여는 글’에서 “까닭 없는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낙담과 좌절감이 소리 없이 퍼져가는 상황이라면, 누군가는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앞날을 전망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또한 “살아남고 싶으면 현실을 직시하라”고도 썼다. 그런데 그 현실이라는 것이 어떤 현실을 말하는 것인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공병호 소장이 재단하여 제공하는 현실을 말할 따름이다. 객관적인 현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